아프리카연합, 아프리카연합재단 출범을 통한 재정 안정성 추구

작성자: 김예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2015년 02월 06일

■ **아프리카연합(AU)은 2015년 1월 30-31일 아디스아바바 아프리카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제24회 정상회의에서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아프리카연합재단을 공식 출범함.**

- 아프리카연합재단은 대체자금조달위원회(Commission on Alternative Sources of Financing)의 권고 내용에 따라 △ 아프리카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권 당 10달러 △ 호텔 1박 당 2달러 △ 문자메시지 건 당 0.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여 매년 25억 달러의 재정을 확충하고 추후 5년 간 AU재정의 65%를 내부적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 대체자금조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아프리카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에서 회원국들의 분담금 비중을 확대하여 외부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협력체들(partners)[1]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함.

■ **아프리카연합의 예산은 회원국의 수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면서도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고 회원국들의 체납 비중이 높아 재정 안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표 1. 아프리카연합 연도별 예산 구성

(단위: 백만 달러)

년도	구분	총액		경상비	프로그램운영비
2013	회원국	278.2	122.8 (44.2%)	117.4	5.4
	협력국		155.4 (55.8%)	-	155.4
2014	회원국	308.0	137.9 (44.8%)	131.6	6.3
	협력국		170.1 (55.2%)	6.3	163.8
2015	회원국	522.1	131.5 (25.2%)	122.8	8.7
	협력국		225.5 (43.2%)	4.2	221.3
	기타		165.1 (31.6%)	15.6	149.5

주: 2015년도 기타 항목에는 예비비, 자산 매입 등이 포함됨.

자료: 아프리카연합(검색일: 2015.2.4.)

- 54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연합의 2014년도 예산은 약 3억 1,000만 달러

1) 중국, 미국, 유럽연합, 세계은행 등 원조국 및 원조기관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로 1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서아프리카경제협력체(ECOWAS)[2]의 2013년도 예산 금액인 3억 9,000만 달러보다 작음.

- 최근 아프리카연합의 역할이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 에볼라 사태 대응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크기 또한 증가세를 보이나 협력체들의 자금 지원 비율이 회원국의 분담금보다 높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떨어짐.

  ㅇ 외부 자금으로 충당한 예산은 평화·안보 유지에 가장 많이 할애되는 반면 산업화, 과학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은 매우 작은 편임.

-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이 회원국 분담금의 64.5%를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북아프리카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3]

  ㅇ 2014년도에 앙골라(5%), 튀니지(3%), 수단(2%), 가나(1.9%), 케냐(1.8%), 카메룬(1.5%), 코트디부아르(1.5%), 에티오피아(1.4%)를 제외한 국가들의 분담 비중은 각각 1% 미만이었으며 상투메 프린시페는 가장 작은 비중인 0.013%(16,386달러)를 분담하였음.

- 회원국들의 분담금 체납도 매년 반복되는 양상으로 체납국의 발언권 제한, 의장 출마 제한 등의 제재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체납금은 503만 달러에 달하였음.

■ **아프리카연합재단의 공식 출범은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아프리카연합의 의지를 반영하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번 조세 정책의 실질적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AU 내 반서구 정서가 확산될 시 협력체들의 자금 지원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연합재단의 과세 항목이 관광산업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남아공, 이집트, 튀니지와 같이 관광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저조한 참여율이 상됨.

표 2. 주요국의 관광산업 비중

(단위: %)

	남아공	이집트	튀니지	모리셔스	탄자니아
GDP	9.5	12.6	15.2	25.3	12.9
고용	10.1	11.5	13.8	23.9	11.2

2) 회원국은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임.
3) 분담금은 국별 GDP에 비례하여 책정됨.

관광수입	9.8	22.3	13.2	29.4	18.5

주[1] : GDP 및 고용은 2013년도 기준, 관광수입은 2012년도 기준

주[2] : 관광수입(International tourism, receipts)은 수출 총액 대비 비중

자료: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orld Bank Data(검색일: 2015.2.5)

- 특히 2015년에는 총 19개국에서 총선 및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휴대전화가 전 소득층에 넓게 보급되어 있어 문자메시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연합의 새 의장으로 선출된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미국 및 유럽연합 내 입국이 금지되어 있으며 의장 수락 연설에서 서방국가들을 제국주의자 및 식민주의자들로 표현하는 등 반서구적인 입지를 표명하여 앞으로 서방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산 집행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됨.

〈자료: 아프리카연합, Daily Mail, 현지 언론 등〉